

할 수 없다. 당신이 그에게 지적하여 그의 아픈 곳을 말했다면, 그는 정말로 당신을 미워하며 이를 부득부득 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잘 수련하는가 하는 이것이 첫째이다. 정말로 그 무슨 크게 나쁜 사람, 나쁜 일을 만났고, 큰 원칙성 문제, 살인방화도 당신이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心性(심성)이 좋지 못하다고 나는 말한다. 바로 당신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본다.

제자: 法輪大法(파룬따파) 수련생은 팔사(刮痧)를 배울 수 있습니까?

사부: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수련하면서 당신이 이것을 해서 뭘 하는가? 당신 자신을 긁으려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긁어주려는 것인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다. 그것은 무당의 술류로 과거 우리 동북에서 곱을 할 때 이런 일을 했다. 곱을 하는 건 정신이 나간 것과 같다. 곱을 함은 부체이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이런 일을 한다.

제자: 무술을 연마(練)하는 사람이 동시에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수련하면 파괴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까?

사부: 그럴 수 없다. 순수한 무술은 그럴 수 없다. 하지만 일부 도가의 무술 그것은 내수(內修)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란할 수 있다. 예컨대 태극권, 형의(形意), 팔괘(八卦) 따위는 연마(練)할 수 없다. 당신이 연마(練)하면 곧 뒤섞여 들어가게 된다. 그것은 기공에 속한다. 그럼 내가 당신에게 넣어준 이 일련의 것이 곧 난잡하게 된다. 물론 나도 당신에게 꼭法輪大法(파룬따파)를 연마하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태극이 좋고 형의(形意), 팔괘(八卦)가 좋다고 느껴지면 당신은 가서 연마(練)하도록 하라. 하지만 나는 다만 당신에게 한 가지 이치를 알려줄 뿐이다. 연공, 수련 그것은 엄숙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일(專一)해야 한다.

제자: 제가 연공할 때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제 신체 옆에 하나의 자신과 같은 그림자가 연공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부: 일반적으로 副元神(푸웬션), 그는 신체를 떠나 수련하지 못한다. 모두 당신과 함께 당신과 동시에 수련하고 동시에 연마하는 것이다. 물론 절대적은 아니다. 개별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당신에게 신체를 조절해

주는 기간에 그가 나오는 것은 가능하다.

제자: 학습반을 시작한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한 덩이 한 덩이 나무 섬유와 같고 또 썩은 천과 같은 것을 토했으며 잇달아 며칠 모두 피를 토하고 모두 피를 뱉어냈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 이것이 그래 좋지 않은가. 마치 내가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설사하고 토하는 것으로, 어쨌든 당신에게 신체 내장까지 모두 정화해 주어야 당신은 비로소 진정하게 수련할 수 있다. 정화하지 않으면 이 더러운 신체로는 도무지 공이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현상은 매우 좋다. 어떤 사람은 마치 핏덩이와 같은 것을 누는데 고름에 피가 섞인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 주겠다. 바로 우리 사람이 무엇이나 다 먹고 어떤 나쁜 일이든 다 하므로 그 신체를 아주 형편없이 만들었다. 어쨌든 모두 배출시키고 정화하므로 여러분은 나중에 잘 수련하도록 하라. 많은 사람이 수련하지 않으면 장차 악성(惡性) 병에 걸리게 될 것이다. 수련 후 신체를 조절할 때 모두 배출해 내보낸다.

제자: 삼화취정(三花聚頂)에 도달하면 생사(生死)

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부: 우리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수련해 삼화취정이 층차에 도달했을 때 世間法(쓰젠파) 수련의 최고 층차에 간 것이지만 여전히 삼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수련해 나가면 그는 곧 정백체(淨白體) 상태에 들어가며 신체는 완전히 고에너지물질로 전환된다. 이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世間法(쓰젠파)와 出世間法(추쓰젠파)의 중간 과도시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 많은 일을 모두 이 과도시기에 당신에게 완성해 준다. 물론 당신이 世間法(쓰젠파) 수련을 벗어났을 때에야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생사윤회를 이탈하고 삼계를 벗어난다.

제자: 가부좌를 하고, 아주 참기 어려운 정도인데, 더 참아가며 계속 가부좌하는 그것은 집착심이 아닙니까?

사부: 집착심이 아니다. 당신이 참을 때는 고통을 참는 것이고 당신은 고생을 겪고 있고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것은 집착심이 아니라 그것은 소업(消業)이다. 이전에 일부 사람은 모르기에 그가 거기에서 다리를 틀고 가부좌를 연마할 적에 그는 다리가 아프기만 하면 그의 다리를 또 훌쩍 내려놓고 좀 활동한 다음 다시 연마하는

『전법륜』에 나오는 法輪大法(파룬따파) 전문용어 발음표기

1. 法輪(파룬) : fǎ lún
2. 法輪功(파룬궁) : fǎlúngōng
3. 法輪大法(파룬따파) : fǎlúndàfǎ
4. 法輪修煉大法(파룬슈론파파) : fǎ lún xiūliàn dàfǎ
5. 法輪世界(파룬쓰제) : fǎ lún shìjiè
6. 眞(전)·善(싼)·忍(런) : zhēn·shàn·rěn
7. 心性(씬씽) : xīnxìng
8. 德(더) : dé
9. 元神(웬션) : yuán shén
10. 主元神(주웬션) : zhǔ yuán shén
11. 副元神(푸웬션) : fù yuán shén
12. 主意識(주이스) : zhǔ yìshí
13. 副意識(푸이스) : fù yìshí
14. 氣機(치지) : qì jī
15. 本體(번티) : běntǐ
16. 世間法(쓰젠파) : shìjiān fǎ
17. 出世間法(추쓰젠파) : chū shìjiān fǎ
18. 定(땡) : dìng
19. 眞體(전티) : zhēntǐ
20. 功身(궁션) : gōng shēn

■ 본 저서에 나오는 法輪大法(파룬따파) 전문용어는 한자로 표기하고 중국어 발음을 괄호 안에 표기하였는바, 독법상 중국어 발음으로 읽어야 한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나중에 또 끊임없이 배우고, 연마하고 듣는 것을 강화해야만 당신은 점차 이해하고 인식을 깊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또 여러분들에게 희망한다. 이 강의를 다 들은 다음 무엇이든 모두 잊지 말고 돌아가 책을 많이 보고 녹음을 많이 듣도록 하라. 그래야만 비로소 당신이 끊임없이 제고될 수 있다.

이것을 많이 말하고 싶지 않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말을 해주겠다. 당신은 앞으로 수련과정에서, 만약 당신이 아주 참기 어렵다고 느낄 때, 만약 당신이 안된다고 느낄 때, 당신은 나의 이 말을 생각하도록 하라. 무슨 말인가? 바로, 행하기 어려운 것도 행할 수 있고 참기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다. 여러분이 모두 대법수련 중에서 공성원만(圓滿功成)하기를 희망한다!

가 하면, 그런 다음 아프기만 하면 그의 다리를 또 훌쩍 내려놓고 좀 활동한 다음 다시 연마한다. 그는 이렇게 연마함이 정말 좋다고 느끼지만 사실 아무런 작용도 일으키지 못한다. 진정한 가부좌는 거기에서 다리를 틀어 몹시 아플 때, 몹시 심하게 아플 때 아주 크고 아주 큰 그 압력이 아래로 제거됨을 발견한다. 제거된 이런 물질은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백색물질로 전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대가를 치렀고 고생을 겪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德(더)로 전화된다. 가부좌는 흔히 진통(陣痛)이라, 아픈 그 한동안은 그야말로 견디기 어려우나 좀 지나면 다리가 완화된다가, 잠시 후 또 아프기 시작한다. 아픈 것은 心性(썬썬)을 닦는 것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소란하게 할 수 있다. 신체적으로 고생을 겪고 마음으론 고통을 겪는지라, 가부좌할 때 당신의 이 마음을 소란하게 한다. 너무나 소란스럽기에 곧 내려놓으려 하는데 이것은 참음이 아니다.

제자: 사부님의 요구에 따라 참답게 心性(썬썬)을 수련하면 금세에 꼭 出世間法(추쓰젠파)를 연마해 낼 수 있습니까?

사부: 누가 이렇게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는가? 당신

은 이 결심이 있는가? 당신의 감당 능력, 인내 정도는 당신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사부가 문으로 이끌어 들였지만, 수행은 개인에게 달렸다.

제자: 낮에는 心性(썬썬)의 어느 면을 지켰지만, 꿈 속에서 그대로 못했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 대낮에 명명백백하게 心性(썬썬)을 지키는 그것은 물론 아주 쉽다. 당신이 心性(썬썬)을 닦고 지킨 것이 착실한지 착실하지 않은지를 고힘한다. 당신이 잠을 잘 때나 定(땡)한 것이 아주 깊을 때 정력(定力) 중에서 당신을 고힘한다. 이는 가장 정확한 것으로 당신이 착실한지 착실하지 않은지를 본다. 누구나 다 이 문제가 출현할 수 있다. 지키지 못했다면 아직도 그리 착실하지 못함을 설명한다.

제자: 부체가 있는 사람이 法輪大法(파룬따파)를 배우면 부체를 죽여 버리는 것입니까?

사부: 우리 이 법을 이런 동물들이 와서 듣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이 장소에 감히 들어오지 못한다. 들어오면 우리는 곧 처리한다. 우리는 셋째 날에 수련생의 신체를 철저히 청리해 준다.

것이다. 화상 또는 무슨 수도인(修道人)이든 나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이는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진정하게 고충차로 사람을 이끌고 이런 더욱 높은 층차의 법을 말함은 오로지 나 한 사람뿐이라, 그럼 전 세계적으로도 역시 나만 하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역사 시기에, 인심이 매우 복잡한 이런 환경에서 정법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하게 제고를 가져올 수 있으며 진정하게 수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당신이 수련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이 학습반에서 돌아간 다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이럴 것이라고 믿는다.

많은 수련생이 나에게 “사부님, 저는 당신의 몇 강의를 들은 후 저 자신의 세계관마저 전변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이 큰 조류, 큰 물결 속에서 그릇된 것을 정확한 것으로 여기며,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가 하면, 악한 것을 선(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모두 관념으로 형성되었다. 사람들이 모두 이런 물결 속에서 이렇게 집착하고 추구할 때, 내가 단번에 당신의 관념과 완전히 다른 인식을 말했을 때, 많은 신(新)수련생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도 좋다는 것을 알지만, 단번에 이해할 수 있고 아주 똑똑히 말할

나를 보고 있었다. 내가 고층차로 여러분들을 이끌거나 여러분들의 신체를 정화해 주거나 간에, 목적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10강의가 끝난 후에는 바로 여러분들을 보아야 한다. 수련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당신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는 완전히 당신에게 달린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말한다. 기왕 이미 여기에 앉아있는 만큼 여러분은 모두 연분(緣份)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당신이 돌아가서 공력을 들여 어떠한가를 보라. 견지할 수 있으면 당신은 곧 견지하고 수련해 나아가도록 하라. 대가를 얼마나 치르면 그만큼 얻을 수 있는데 틀림없이 이리하다.

우리는 많은 경험이 있으며 많은 수련생이 자신이 직접 수련한 체험이 아주 많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에게 많은 경험과 각종 교훈을 제공해 주기에 넉넉하다. 전체적으로 말해 한마디다. 바로 오늘 우리 여기에 앉아서 이 8일, 10일 또는 더욱 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할 수 없다. 사람이 진정으로 진짜를 얻기는 몹시 어렵다. 일단 얻은 다음 만약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장래에 후회해도 늦다. 중국 사람에게는 “이 마을을 지나면 이 주막은 없다”는 한마디 말이 있다.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은 우리 강의를 통해 아마 모두 감수했을

제자: 연공하여 입정(入靜)한 후 일부 동물들이 자기에게 접근하거나 한편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 당신은 그것을 상관하지 말라. 만약 그것이 당신의 신변에 오면 당신은 곧 사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라. 그것이 신기하게 여겨 좀 보려고 해도 그것을 응대하지 말라. 그것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자: 제5장 공법의 주상가지(柱狀加持)를 연마할 때 두 손바닥 사이에 아주 강한 기류가 있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 가지(加持)는 그런 에너지 덩어리를 가지하는 것으로서, 바로 각종 공능이며 그것의 대다수는 공(球) 형태, 공(球) 모양의 공능이다. 이런 유의 공능이 가장 많은 것으로 그 공능은 만 가지도 넘는다. 손바닥을 마주하는 이것은, 기둥 모양의 공능을 가지(加持)하는 것으로, 마치 레이저와 같은 것을 내보내거나 무슨 장수뢰(掌手雷) 같은 것을 하는 것이다. 손 가운데는 아주 강렬한 한 가닥 기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민감하지 않다.

제자: 사부님께서 말씀하시는 副意識(푸이스)는 평소에 말하는 영혼이 아닙니까?

사부: 과거의 그런 용어를 여기에 짜 맞추지 말라. 나는 현대 인체과학과 오늘날의 이 과학에 결부해 이것을 말하기에, 말한 것이 더없이 명백하다. 그 무슨 삼혼칠백(三魂七魄)이라든가 또는 어떠어떠하다는 것은 아주 두루뭉술하다. 당신의 오장육부는 모두 당신 본인의 형상이고, 당신 신체의 매 세포는 모두 당신 본인의 형상이며, 당신 매 공의 미립은 모두 당신 본인의 형상이다. 그가 말하는 그 무슨 삼혼칠백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아주 두루뭉술하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主元神(주웬선), 副元神(푸웬선)이 있다. 내가 방금 말한 것은 그 무슨 미신이 아니다. 우리 현대 과학은 이미 이 문제를 인식했다. 작은 흰쥐를 절편해 그것의 썰어놓은 한 조각 세포를 어떤 전도(傳導)로 먼 거리, 몇천 리 떨어진 데서 접수한 다음, 세포가 나타내는 영상은 바로 그 작은 흰쥐의 형상이며 하나의 세포이다. 이것은 내가 허황하고도 허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발전한 현재의 과학기술은, 당신이 미신적이라고 인식해 온 많은 것을 지금 모두 실증해 냈다. 과학이 그

녹음을 참조할 수 있다. 이 10강의 시간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말했다. 이 학습반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책임졌는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론이 있을 것이므로, 이런 문제를 나 역시 말하지 않겠다.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 학습반은 매우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시작이 있고 종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에 우리는 그것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었다.

여러분들이 천리를 마다치 않고 외지에서 온 사람이 곧 3천여 명이며 가장 먼 곳은 헤이룽장(黑龍江), 신장(新疆)으로 4, 5천 킬로미터, 8천여 리 밖에서 온 것이다. 노정이 아주 멀어 여러분은 아주 많은 고생을 겪었으며, 심지어 일부 사람은 비용이 부족해 매일 라면을 먹고 과자를 먹는 사람도 다 있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것은 바로 이 법을 배우고 이 법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법의 진귀함을 알고 있다. 물론 이 10강의 중에서 나는 될수록 여러분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고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며, 나는 또 될수록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말해 주고 그를 투철히 말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앞으로 수련에 의거할 법이 있게 하였다. 다시 말해 이 10강의 중에서 여러분들은

됩니까?

사부: 물론 된다. 당신은 고향 사람들을 조직해 배우게 할 수 있다. 만약 배우는 사람이 많고 잘 파악했다면 당신은 또 여러 사람을 조직해 연공장을 세울 수 있다. 홍법(洪法)이 곧 사람을 제도함이다.

결 속 어

오늘까지 우리는 이 법을 전부 다 말했다. 더 많이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나누어 말하면 또 말할 수 있으며 나는 여기에 앉아 1년 동안 말해도 역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중의 수련에 좋은 점이 없다. 많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문제를 나 역시 당신에게 말해 줄 수 없다. 구체적인 문제를 내가 모두 당신에게 말해 준다면, 당신은 무엇을 깨닫겠는가?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당신은 수련할 기회, 환경이 없고 조건마저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이 법에 따라 해야 한다. 여하튼 잘해야 한다. 나는 마땅히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할 것을 기본적으로 모두 말했다. 다른 학습반에서 내가 강의한

한 경지로 발전하지 못했거나 우리가 인식은 했지만 보급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제자: 사부님께서 강의하시는 중에 온통 노란색 국화가 앞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무슨 뜻을 대표합니까?

사부: 당신이 본 것은 한 덩이 한 덩이의 노란빛이지 국화가 아니다. 그 노란빛 속에는 오묘한 것이 있다. 우리 이 수련생은 근기가 아주 괜찮다.

제자: 저는 과학기술자인데 인연이 있어 천 리 밖에서 와서 사부님께서 전하시는法輪大法(파룬파파)를 들었습니다. 몇 차례 강의를 듣는 가운데 저는 사부님의 법신을 보고 마음속으로 아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또 없어졌는데 환희심의 결과가 아닙니까?

사부: 아니다. 많은 사람이 흐리멍덩하게 무의식중에 일부 광경을 보았는데, 무엇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당신이 보았을 때, 당신이 보았다고 의식하고 좀 자세히 보고자 생각하기 때문에 곧 없어진다. 당신이 자세히 보고자 생각하고 바로 눈을 움직인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눈으로 물건을 보는데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무의식중에 천목으로 물건을 볼 때 눈을 뜬 것과 눈을 감은 것은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보는 데 습관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보는 데 습관이 되었다. 그래서 당신이 자세히 보려고 생각해 눈을 움직인 것이다. 당신이 눈을 움직이자 시신경을 거치게 되고 이 한 갈래 통로를 거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당신은 보지 못한다. 당신은 지금 아직 이 통로를 쓸 줄 모르고 있다.

제자: 부동한 사람은 다만 부동한 층차까지 수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부: 물론 이 역시 절대적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그는 참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절대적이 아니다.

제자: 해외잡지에 사부님의 法輪大法(파룬따파)를 믿고 선전할 수 있습니까?

사부: 몇 년래 法輪大法(파룬따파)를 널리 선양함에 나는 주동적으로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모두 수련생이 주동적으로 했다. 우리는 원고 쓰는 사람마저 아주 적고 신문에도 아주 적게 실는 것 같다. 우리 학습

사람의 집착심을 버려야만 도달할 수 있다.

제자: 사부님께서 말씀하시는 眞(쩐)·善(싼)·忍(런)의 이치와 우리 천주교 『성경』 중의 이치는 곡은 달라도 연주하는 솜씨는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감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한편, 한편으로 法輪大法(파룬따파)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부: 당신이 대법에 대해 인식과정이 있는 것을 허락한다. 나중에 당신이 명백해진 다음 다시 말하자.

제자: 연공 중에서 어떤 것이 자신을 해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부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부: 그렇다. 이렇게 해야 한다. 연공 중에 어떤 두려운 것을 발견하면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부르지 않아도 그것 역시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이름을 부르는 자체 역시 대법과 사부에 대해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실 법신은 줄곧 지켜보고 있다.

제자: 제가 이번에 광저우에서 法輪大法(파룬따파)를 배운 후, 돌아가 고향 사람들을 조직해 함께 배워도

깨닫지 못했다.

제자: 때로는 침대에 누우면 갑자기 전신이 마비되는 것이 마치 어떤 사람이 손발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 우리 많은 사람이 연공하여 마치 손을 움직일 수 없고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역시 하나의 아주 복잡하고 좋은 현상이다. 사람이 연공하면 이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정공(定功)이라는 한 가지 공이 있는데 역시 자신으로 하여금 감수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 손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것은 한 가지 현상이다. 또 한 가지 현상은 당신의 主元神(주웬선)이 신체를 떠난 것이다. 또한, 사부가 당신에게 신체를 조절해 줄 때, 때론 역시 당신을 고정(定)해 놓는다.

제자: 입정(入靜)하기 위해 사부님의 이름을 외운다면?

사부: 나는 조용하지 못하는 원인을 말했다. 이름을 외우면 좀 좋을 수 있으나 역시 일념이 만념을 대체하는 작용을 일으킬 뿐이다. 근본적으로 청정(淸淨)하려면

반을 이렇게 크게 꾸리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직접 이득을 보고法輪大法(파룬따파)가 좋다고 느껴 비로소 온 것이다. 오늘 한 사람이 참가했다면 다음번에는 가족이 오고 그 다음번에는 친척 친구마저 모두 이끌어 오는데, 모두 이렇게 해서 많아진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좋다고 느꼈다. 이것이 설득력이 가장 강하며 그 선전보다도 좋다고 나는 말한다. 물론 선전 역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전에 우리를 도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주 적었다. 물론 주동적으로 해도 역시 우리 수련생 자신이 한 것이고, 당신도 할 수 있다.

제자: 만약 우리 집에서 개를 기른다면 집에서 연공할 수 있습니까?

사부: 이런 것들은 영기(靈氣)를 아주 쉽게 얻는다. 영기를 얻으면 그것이 곧 사람을 해치려 한다. 과거 불교에는 죽이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다는 한마디 말이 있다. 이 일을 역시 너무 절대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으면 곧 되는 것이다.

제자: 요 며칠 저는 어디에 가든지 모두法輪大法(파룬따파)의 음악 소리를 듣는데 이는 어떻습니까?

사부: 그것은 아주 좋다. 이것을 천이통(天耳通)이라고 한다. 하늘에서도 이 연공음악을 듣고 있다.

제자: 자료집에 줄을 긋거나 주해를 달 수 없습니까?

사부: 여러분은 내가 썼거나 내가 말한 글에 글을 긋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전법륜』 그 책은, 우리 천목이 열린 많은 사람이 보면 금빛으로 빛나며 매 글자가 모두 나의 법신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업력이 있으며 수련하여 世間法(쓰젠파)를 벗어나지 못한 제자의 신체 역시 순정(純淨)하지 못한 것으로, 당신이 그 위에도 그 줄을 긋기만 하면 시꺼멓다. 당신의 신체는 아직 고도의 정화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 한 줄은 모두 당신 자신의 형상이며 동시에 업력을 갖고 있다.

제자: 저는 군인인데 때론 출장 중에 한두 주일 연공할 수 없다면 法輪(파룬)을 회수해 가지지 않습니까?

사부: 이걸 그럴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의 직무로서 어쩔 수 없다. 이 수련은 닦는(修) 것이 제1위이며 가장 주요한 것이다. 당신 이 사람이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사람이고 자신에 대한 엄격한 心性(썬썬) 요구가 있으며 평소 아주 잘했다면, 업무로 어느 기간 출

는 사람이 공을 얻는다는 이 문제는 얼마나 엄중한 문제인가!

제자: 사부님께서 단체 연공을 강조하심은 사마(邪魔)의 교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사부: 아니다. 당신은 나의 법신이 있고 法輪(파룬)이 있어 모두 당신을 책임지고 있다. 곧 이 뜻을 말한다. 우리가 단체로 연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서로 토론하고 서로 탐구하여 더욱 잘 제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며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다.

제자: 저는 평소에 집에서 연공할 때 心性(썬썬)은 비교적 조용하지만 역시 소수(少數) 좋지 못한 정보가 제 마음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줄곧 당신을 뵈고자 손꼽아 기다렸는데... 사부님, 저는 저에게 저령부체(低靈附體)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부: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연마하는데 어디에서 온 저령부체란 말인가? 생전의 연분 때문이다. 당신이 대법을 배우지 않고 오로지 나만 만나보려고 생각하는 이것 또한 집착이기 때문에 1년 남짓 끝었으나 여전히

만 또 절대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색깔은 사람의 육안으로 보면 이런 것이고 이 공간은 이런 것이나, 다른 공간은 이런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색깔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제자: 神通加持法(선통자츠파)를 연마하는데 제인(結定印) 후, 가끔 연공을 시작할 때 하는 수인(手印)을 다시 한 번 하거나 일부 다른 동작을 하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 이러면 맞지 않다. 당신에게 다시 한 번 하게 한 그 뜻은, ‘당신이 보라, 이것은 사(邪)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고는 잇따라 당신에게 곧 사한 것을 보내온다. 여러분들은 절대 기억하라. 당신은 자신이 명명백백하게 수련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모두 엄중하게 말했다. 나는 아주 강한 공으로 당신 머릿속에 새겨 준다. 그러나 어떤 사람, 그는 안 되는데, 고만한 환희심도 내려놓지 못한다. 그 무슨 기(機)가 그를 이끌어 연마(練)하기만 하면, 어이구, 환희심이 즉시로 나와 기뻐하면서 그는 곧 따라 연마(練)한다. 그것이 당신이 명명백백하게 연마하는 것인가? 당신 주관이 연마하려는 것인가? 당신은 누구를 위해 연마하는가? 누구든 연공하

타해도 당신의 法輪(파륜), 당신의 공은 약화하지 않고 오히려 제고될 수 있다. 무엇 때문인가? 내가 말했듯이 진정으로 당신 층차의 고저를 결정하는 공은 닦아내는 것이지, 연마해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작수법을 통하여 연마함은 다만 그 현존의 공을 강화하고 그를 가지(加持)함에 불과하다. 이전에도 우리 적지 않은 사람이 출장을 갔다. 출장 가서 반달이 되지만 돌아와 보면 이 공은 여전히 자랐다. 어디를 가나 다 좋은 사람이 되고 모두 이 법으로 자신에게 요구한다면 말이다. 돌아온 후 연공을 많이 해 보충하면 된다.

제자: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도 수련할 수 있습니까?

사부: 이 속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 과거 종교에서 살생한 후, 특히 사람의 생명을 해친 후 수련하기가 몹시 어렵다고 말했다. 전쟁 연대를 지나온 사람, 또 전선에 나갔던 사람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집착심을 버리는 것은 모두 사람이 자신의 주관적인 소원에서 나온 것, 이기적이며 속인사회에서 집착심이 조성한 살생이다. 전쟁과 같은 이런 유의 일은 모두 천상(天象)의 변화거나, 사회의 변화가 가져온 것에 속한다. 당

신은 단지 천상의 변화나, 사회변화 운동 중의 한 분자에 불과하다. 만약 이 분자의 작용이 없다면 또 이 천상의 변화를 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구분해야 한다. 이것은 별도로 되는 일이다.

제자: 신화소설 『서유기』는 수련하는 책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사부: 무슨 수련하는 책이 아니며 그것은 아주 생생한 수련과정을 썼다. 이 이야기는 구구 81난(難)을 말했고 아주 많은 마난(魔難)에 부딪혔는데 마난의 형태도 같지 않다. 그는 바로 그런 형태 마난의 수련으로, 줄곧 최후까지 한 가지 난(難)도 모자라면 안 되며 모자라면 그 한 가지 난(難) 또한 보충해야 한다. 바로 이런 뜻이다.

제자: 남자가 가부좌를 배울 때 왼쪽 다리를 먼저 틀어 올리고 오른쪽 다리를 나중에 틀어 올려야 합니까?

사부: 남자의 반가부좌(單盤)는 왼 다리가 위에 있고 오른 다리가 아래에 있으며, 여자는 오른 다리가 위에 있고 왼 다리가 아래에 있다. 결가부좌(雙盤)는 곧 밖에서 밑의 그 다리를 위로 올려놓으면 바로 결가부좌다.

제자: 저는 이전에 다른 공법을 연마(練)했습니다. 어느 날 『과학과 기공』 잡지를 보았는데, 사부님의 사진을 보자 유쾌한 감각이 생겼으며 갑자기 어떤 물체가 백회(百會)에서 머릿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리하여 곧法輪大法(파룬파파)로 바꾸어 배우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사부: 다시 말해 당신의 근기는 아주 좋으며 연분이 있어 대법을 얻은 것이다. 당신이 호감이 생겼고 배우려 하기에 곧 당신을 도운 것이다. 나의法輪(파룬)은 어디에나 다 있다.

제자:法輪大法(파룬파파) 서적과 테이프 등 기본적인 색조는 무엇 때문에 남색(藍色)으로 정했습니까?

사부: 이것은 그 무슨 특수한 원인이 없다. 왜냐하면, 속인의 눈으로 우주를 보면 하늘은 짙은 남색이며 푸른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우리는 곧 이 한 층의 뜻을 사용했다. 왜냐하면,法輪大法(파룬파파)는 본래 우주의 특성에 따라 연마하며 우주의 연화(演化) 원리에 따라 연마하는 것이라, 이렇게 큰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곧 이 우주의 색깔을 표현하려는 이런 하나의 뜻이다. 하지

있을 때, 때로는 어떤 단 것이 입안에 떨어지나 무슨 물
질인지 모르겠는데 무엇입니까?

사부: 그것은 당신의 주천이 운행할 때 맥에서 흘러나
온 것으로 당신이 느낀 것이다. 모두 이런 것은 아니다.
때 사람의 상태는 같지 않다.

제자: 눈을 감고 좀 입정(入靜)만 하면 마치 꿈을 꾸
는 것과 같이 대뇌 속에 비교적 고정된 경치 혹은 사람
이 출현합니다. 고대나 현대의 것이 다 있는데 환각이
아닙니까?

사부: 이 역시 환각이 아니며 바로 당신 천목의 원인
으로 조성된 것이다.

제자: 사람의 집착심은 일종 습관적 사유입니까?

사부: 일반적인 속인을 말한다면 이미 자연적인 것으
로 형성되었다. 어쨌든 입만 벌리면 곧 개인의 이익이고
머리를 쓰기만 하면 곧 개인의 이익으로 모두 자연적인
것으로 형성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선천적인 데서 온 것
이 아니며 이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런 좋지
못한 것이 많아지면 자신을 점차 하나의 복잡한 사상으로
변화되게 한다.

무엇 때문에 남자는 왼 다리가 위에 있어야 하고 여자는
오른 다리가 위에 있어야 하는가? 結印(제인) 역시 마
찬가지인데 남자는 순양지체(純陽之體)에 속하고, 여
자는 순음지체(純陰之體)에 속하기 때문이다. 연공은
음양 평형을 중시하는 것으로, 당신의 순음(純陰) 혹은
순양(純陽)을 억제하고 당신의 음과 양을 증강해 음양
이 평형을 이루게 한다. 당신이 여자라면 당신의 양을
발휘시키고 당신의 음을 억제함이 유리한데 그것은 이
러한 작용이 있다.

제자: 사부님의 설법 녹음테이프를 듣고 어느 날 아침
저는 침대에 누워서 눈을 뜨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제
침대 옆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아
주 무겁고 움직일 수 없었으며 잇따라 다른 사람이 제
턱뼈를 세게 누르는 것을 느껴 일어나 보니 원래 딱 다
물지 못했던 입이 자연스럽게 다물어진 것을 발견했습
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보고도 역시 턱뼈가 낮아졌다
고 말하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 이것은 법신 몇이 당신에게 신체를 조절해 준
것이다.

제자: 매번 제가 거울을 마주하고 연공할 때 눈을 감으면 무의식중에 자신의 그림자가 흑백사진 필름과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 천목이 방금 열렸을 때 물건을 보면 흑백인지라, 흰 것을 보면 검고 검은 것을 보면 희다.

제자: 정공(靜功) 가부좌를 연마할 때 참기 어렵지만, 또 내려놓고 싶지 않는데 사부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의념(意念)을 더하는 것입니까?

사부: 그것은 의념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사부의 말을 생각하고 우리의 참음을 증강하고 견지하려는 그것은 당신의 무슨 의념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정진(精進)하는 한 면이다.

제자: 연공장에서 노(老)수련생이 제 몸에 물체가 있다고 하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는 말을 듣지 말라. 많은 수련생은 천목이 열린 후 스스로 마음에 환각(幻覺)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는 부체와 전생에 갖고 온 형상을 명확히 분간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형상 역시 꼭 당신의 主元神(주원선)이라고 하지 못하며 副元神(푸원

신은 그를 연마하여 무엇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참음이란 화를 낸 다음에 비로소 참는 것이 아니라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제자: 다른 사람의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와 저로 하여금 입정하지 못하게 하여 심지어 잠도 잘 자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사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공능이 있는데 타심통(他心通)이라고 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본래 좋은 일이지만 자신을 잘 파악해야 한다. 지금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어떤 나쁜 일이든 다 생각하며 심지어 당신을 몰라도 당신을 보기만 하면 모두 당신에게 좋은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한 당신은 그런 일을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바로 내가 오늘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간곡하게 타이르며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장(場) 속에는 온갖 생각을 내보내는 사람이 다 있지만 내가 당신의 것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제자: 본인이 神通加持法(선통자츠평)을 연마하고

제자: 만약 어떤 생명위험에 부딪혔다면?

사부: 만약 당신이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에게 앞으로 수련의 길을 배치할 때 당신에게 이런 것을 배치해 주지 않는다. 일체 일은 다 인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그것을 배치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곧 만나지 못한다. 그것이 당신의 수련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당신의 수련과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는 되도록 배치하지 않는다. 정말 당신을 죽였다면 당신은 또 수련할 수 있는가? 하지만 한 가지가 있다. 수련할 수 없는 속인이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 하는 등 마는 등 하는 사람, 또 법에 따라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직 수련인이 아니다. 그러면 속인이 무엇에 부딪히면 그도 여전히 무엇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는 바로 속인이다.

제자: 마음이 불안할 때 연공할 수 있습니까?

사부: 심정이 좋지 않을 때는 연공할 수 없다. 당신은 입정하지도 못한다. 당신이 거기에서 씹씹거리며 화를 내고 있는데 당신이 眞(쩐)·善(싼)·忍(런)의 그 인(忍)을 했는가? 당신 역시 못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당

선)의 형상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일을 도무지 명확히 분간하지 못한다. 일부 수련생이 함부로 하는 말을 듣지 말라. 명확히 분간하지 못하고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곧 난법(亂法)이다.

제자: 저는 때로 풀지 못하는 난제에 부딪힐 때 사부님의 사진을 마주 향하고 뽐니다. 이때 사부님의 사진은 곧 변적이며 法輪(파륜) 주위도 역시 변적입니다. 때면 이럴 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심정도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 이는 한 가지 현상으로 진수(眞修)제자는 각종 현상을 모두 만날 수 있다. 당신에게 정진(精進)하라고 고무 격려하는 것이다.

제자: 저희가 眞(쩐)·善(싼)·忍(런) 표준으로 그 어떤 공법이든 정법인지 사법인지 검사할 수 있습니까?

사부: 그건 물론이다. 우주의 특성이 바로 眞(쩐)·善(싼)·忍(런)으로 우리 공(功)에만 전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특성이며 우리는 眞(쩐)·善(싼)·忍(런)에 따라 수련하는 것이다. 眞(쩐)·善(싼)·忍(런)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고 우주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그것은 모두 사(邪)한 것이다.

제자: 단지 氣機(치지)만 있지만 제가 열심히 수련한다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려야 비로소 法輪(파룬)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사부: 그것은 당신 자신이 고생을 겪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결심을 하고 수련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정말 결심을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수련하며, 당신이 정말로 괜찮고 정말로 이전에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알고 더욱 잘한다면, 내가 생각하건대 당신에게 法輪(파룬)을 줄지도 모르는데 그건 모두 가능하다. 이런 일일지라도 절대적이 아니다.

제자: 수련의 길에서 허다한 마난에 부딪혔는데 이런 사람이 노력을 거쳐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수련할 수 있습니까?

사부: 오로지 당신이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수련하려 하기만 하고 연분이 있다면 누구나 다 와서 수련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강조할 것은, 수련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당신이 기어코 그를 끌어오지 말아야 한다. 남은 흥취가 없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기어코

물론 위험한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 고층차로 공을 전함은 본래 바로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다. 무엇을 인류를 구원하고 좋은 일을 함이라고 하는가? 나는 힘닿는 대로 나의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이 물어본 일은 너무 높기에 명시할 수 없다.

제자: 참음과 무골호인(好好先生)의 구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부: 무골호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당신이 그에게 구분해 준 표준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복잡한 환경에서 누굴 좀 상관하려고 한다면 모두 공격받을 것이다. 모두 이런 것을 보고 또 방법이 없기에 아쉬운 대로 참고 견디며 보전을 꾀한다. 고생을 사서 하지 않으려는 속인이 라면, 내가 생각하건대 이 사람은 또 당신이 말하는 그 무골호인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무골호인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참음은, 당신 자신의 각종 욕망과 집착을 참고 당신에게 불필요한 번뇌를 적게 가져다주는 것이다. 이 역시 그 무슨 무골호인이 아니다.

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연마하는 사람은 일부 원래 갖고 있던 생활 기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사부: 당신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 오늘 당신에게 칠정육욕(七情六慾)을 단번에 모두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가? 전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부는 당신의 관념에서 이미 모두 자연적인 상태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의 그 좋지 못한 심태를 깨닫지 못하고 관찰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수련과정에서 당신이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한다면 점차 각종 집착심을 없애버릴 수 있으며 서서히 제고될 수 있다. 그때에 당신이 제출한 문제를 생각만 해도 당신은 얼굴이 붉어질 것이다.

제자: 法輪大法(파룬파파)는 일찍이 부동한 시기에 인류의 겁난(劫難)이 닥쳐올 때 인류를 구원한 적이 있습니까?

사부: 나는 이러한 이치를 말하겠다. 인류가 위험한 시기에 왔다거나 겁난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비록 그것을 말하지 않지만, 우리 역시 보았다. 인류는 도덕이 이렇게 전락하여 내려갈 수 없으며 전락하여 내려가면

가자고 하며 기어코 남을 끌어다 배우게 하면 안 된다고 나는 말한다.

제자: 부체가 본인을 따른 지 28년이나 되며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운 오늘까지도 떠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과로 수련 성취할 수 있습니까?

사부: 이렇게 긴 시간을 따라 했는데도 당신은 그것을 쫓아버리지 않았다. 당신이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우는 목적이 그것을 쫓아버리려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것을 쫓아버리기 위해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우러 오는 이것은 구하고자 하여 배우는 것이다. 이 법(法)을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 수련하라는 것이다. 신체를 조절하고 당신의 병을 제거해 주는 목적마저도 모두 당신에게 수련하라는 것이다. 나는 병을 치료하러 왔다고 당신이 말한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해줄 수 없다. 나의 이것은 일반적인 기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모두 더욱 높은 층차의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대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부 일들은 모두 자신의 문제다. 28년이 아니라 2천8백 년이라도 한순간의 일이다.

제자: 무엇 때문에 평소 心性(썬쌩)에 대한 일을 참을 수 있으나 꿈속에서는 참지 못합니까?

사부: 바로 아직도 착실하지 못한 것이다. 진정한 수련은 아주 엄숙한 일이다. 당신이 나는 속인 중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쨌든 마음대로 한다면, 당신은 꿈속에서 곧 고비를 넘지 못한다.

제자: 주동적으로 주위의 동료, 친구에게 관심을 두고 돕는 것과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무위(無爲)는? 모순됩니까?

사부: 여전히 그 한마디 말이다. 현재 당신에게 모든 유위(有爲)적인 일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이 지금 될 수 있는 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한다면 점차 많은 일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데 차츰차츰 해야 한다. 주위 사람을 도와 법을 얻게 함은 별개의 일이다.

제자: 큰法輪(파륜)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부: 그것은 바로 큰法輪(파륜)을 돌린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로 큰가? 어쨌든 그는 매우 크다. 내가 얼

마나 큰 천체(天體) 중에서 법을 바로잡자면 곧 그만큼 큰法輪(파륜)을 돌린다.

제자: 남들이 말하는 음양안(陰陽眼)은 귀혼(鬼魂)을 본다는데 이 사람은 천목이 열렸습니까?

사부: 어쨌든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이 속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면 곧 당신의 천목이 본 것이다. 물론 이 천목의 주 통로가 여기에 있고 또 일반인은 산근(山根) 부위에서 보는 것이 비교적 많다. 물론 개별적인 사람은 또 눈을 통해 볼 수 있다.

제자: 제가 가부좌할 때, 때로는 윗몸이 뒤로 젖혀지고 두 다리가 들려 거의 앉아 있지 못하겠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 이것이 바로 당신은 내가 말한 그 맥이 통하는 것처럼, 뒤로 젖혀짐은 바로 당신 신체의 앞면이 잘 통하고 뒷면이 잘 통하지 않아 무겁다고 느끼는 것이다. 다 잘 통했다면 신체는 위로 솟으려 하며 공중에 뜨려는 감각이 있다.

제자: 연공은 전일(專一)해야 한다는데 저는 분명하